

순천시, 중국서 현지 기업들과 교류 활발

허석 시장, 중관촌 기업 방문 생태·콘텐츠 협력 모색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에 대한민국 대표정원 조성도

순천시가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대표정원을 연 데 이어 중국 현지 기업들과 교류 협력 사업 추진에 나섰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원예박람회에서 2100㎡ 규모의 한국정원을 조성했다.

‘한국정원, 세계의 평화와 교류를 희망하다’를 주제로 한옥과 연못, 담장으로 구성했다.

정원 중앙에는 옛 순천부읍성에 있던 연자루를 축소한 누각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25일 열린 한국정원 준공식에서는 취타대 연주와 수문장 교대식에 이어 한국대표 음식인 비빔밥, 녹차, 송이차 등이 선보였다.

허석 시장은 세계원예박람회에 참가한 뒤 중국 실리콘벨라 불리는 중관촌(中关村)에서 생태 관련 기업을 잇달아 방문했다.

허 시장은 빗물을 이용해 다양한 도시환경을 바꾸는 원천 기술을 가진 베이징 ‘타이더론(Tidelion)사’를 방문했다.

타이더론사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과 지하철역사 건축 등에 실제 기술을 도입했다.

빗물을 활용한 스펀지 도시 연구 용역공정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도시를 연구하고 있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IIE-STAR사를 방문해 순천시 웹툰지원센터와 순천대 등과 콘텐츠 분야 교류 협력을 하기로 했다.

IIE-STAR사는 순천 할머니 작가들의 이야기와 설화, 역사를 활용한 웹툰 드라마 제작 등 문화 교류도 검토하기로 했다.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진시순 마네를 협 회장의 만찬에 초청된 허 시장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Jim Rogers)를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와 함께 허석 순천시장(왼쪽)이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Jim Rogers) (가운데)와 만나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만나 순천을 알렸다.

허석 순천시장은 “베이징은 1420년에 베이징 순천부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순천시는 1413년에 순천 도호부가 되었다”

며 “베이징과 순천의 이러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우호 교류를 할 수 있는 협약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철재공공예술 프로젝트 ‘H-Steel 아틀리에(ATELIER)’ 쇼케이스에 참석한 시민들이 순천시의 상징인 두루미 풍선을 날리고 있다.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순천만생태교육원에 ‘스틸 아틀리에’ 조성

철재 공공예술조형물 설치

현대제철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28일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철재공공예술 프로젝트 ‘H-스틸(Steel) 아틀리에(ATELIER)’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공공예술조형물을 공개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철이디자인 하는 자연 놀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해 스틸 포레스트(Steel Forest), 내추럴 페인팅(Natural painting), 숲속의 노래 등 3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들 작품은 교육체험센터의 장소적 특징을 반영해 생태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담았으며 야외 녹지공간에 설치됐다.

또 순천만의 상징인 흑두루미와 관련된 지역의 미담을 모티브로 시민들이 참여 만든 ‘날개로, 희망으로’도 같은 공간에 설치됐다.

이 작품에는 순천지역 초등학생 200여명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날개 깃털에 담았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은 전라남도 유일의 교육체험센터로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김원배 현대제철 순천공장장(상무)는 “이 프로젝트는 현대제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에 회사가 동일인 금액을 출연해 조성된 매칭그랜트 기금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폐막... 53만여명 관람

지난해보다 9만여명 증가

정원 속 세계인의 축제인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기간 동안 53만여명의 관람객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600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정원을 걷다, 세계를 여행하다’ 주제로 펼쳐진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는 23개

국의 주한대사 등이 참석해 환경과 정원 문화를 공감했으며, 정원문화의 세계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와 인도, 타지키스탄, 엘살바도르는 양국 교환 정원 조성을 희망해왔다.

또 세계 15개국에 참여한 국가의 날 행사는 총 150여명의 출연진이 국가별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장 주변에 펼쳐진 플라마켓 부스는 전통공예품 전시, 의상·놀이 체험, 기념품 판매 등 세계문화 교류의 공간이 됐다

는 평가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을 통해 세계인이 문화를 교류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함께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며 “향후 정원조성을 희망한 각 나

라의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7월19일부터 38일간 여름 물빛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탄력...공모사업 선정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재난안전 선도사업’ 공모에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재난환경을 고려해 사업효과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선도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안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대기선에

감지 센서를 설치해 보행자가 대기선을 넘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신호등과 연계해 신호등 변화를 알려주는 음성안내 시스템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지역에서 차량 대 사람간 사고의 50%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을 신청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농협 역사 바로알기·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순천시와 순천농협이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 역사 바로 알기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시와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재)은 지난 27일 ‘순천 역사 바로 알기’와 ‘관광객 유치 공동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강성재 조합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2019 순천 방문의 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로 약속했다.

또 순천 역사에 담긴 정신 찾기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천농협이 보유한 인프라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순천시가 개최하는 축제를 홍보하는 등 마케팅 부분에서도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 마린클럽 창립 20주년 맞아 ‘희망의 씨앗 나눔’



취약계층 아동 50명에 생필품·식료품 전달

순천 마린클럽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희망의 씨앗 나눔 행사’를 펼쳤다.

순천 마린클럽은 최근 순천시 장애인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50명에게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사진)

해병대 출신 젊은이들로 구성된 마린

클럽은 20년동안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봉사 및 환경정화활동, 장애인 나들이 행사, 희망의 씨앗 나눔행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장영선 순천 마린클럽 회장은 “회원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천 마린클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